

# 檢察 출신 변호사 “민주당·박영선 ‘LH특검’? 웃기는 소리”



<지난 3월 15일 오후 광주 서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 앞에서 광주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이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을 요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가 LH 사태 관련 특검 수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수사가 뭔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3월 16일 페이스북에 “LH 사태를 맞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난 민심을 조금이라도 돌리고자 다급한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가 특검을 도입하자고 난리를 치는데 수사가 될

지 알고나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며 “국회 법사위에 오래 몸담았던 박 후보가 특검을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법사위에 있을 때 놀고 먹었는지, 정신줄 놓고 있었는지 알 것 같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최고 수사력과 최강의 조직력을 보유한 검찰손발을 묶어 놓고 LH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고 우왕좌왕 하는 모습도 우습지만 대안이 특검이라는 것은 더 웃기는 소리’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합동수사팀도 규모가 770명이다. 조사 대상도 친인척, 차명보유분까지 감안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수사인력과 조직에 한계가 있는 특검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특검은 파견검사들이 핵심역할을 했는데 검찰청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제한된 검사들이 특검으로 파견 왔다 해서 없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렇다면 수사권도 행사할 수 없는 특검 파견 검사 대신 파견 경찰 중심으로 특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이미 국수본 합동수사본부에 정예 수사관들이 모두 가 있을텐데 특검에는 또 누가 온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4년 내내 한 짓이 바로 이런 방식’이라며 “넘쳐나는 최고의 인재를 놔두고 3류 친정권 인사로 국정을 꾸려나가다 보니 봉숭아 학당 정권, 부패 공화국을 만들어 버렸다. 지금이라도 특검 같은 헛소리 하지 말고 180석 절대 다수 의석으로 검찰청법을 개정해서 작년 12월 31일 이전처럼 검찰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게 원상회복 하면 간단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이 중심이 되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전국 검찰을 동원해 LH 사태를 비롯한 중대 비리 수사를 전담시키면 된다. 추가로 예산 들어갈 일도 없고 즉시 수사인력 투입도 가능하다.”며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 놨더니 권력형 성추행이나 일삼은 박원순, 오거돈으로 인해 엄청난 선거비용을 낭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출처/조선일보)